

글로벌대학 광주 10개大·전남 5개大 도전장

이달 중 예비지정 15~20곳 발표
광주는 전남대·호남대 단독 공모
조선대 2개대 통합+4개대 연합
목포대 단독·동신대 연합체 구성

2024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서류 제출이 지난달 22일 마감한 가운데 광주에서는 10개 대학, 전남에서는 5개 대학 등 15개 대학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글로벌대학은 인구·산업구조 급변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과감한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5년간 최대 1000억원까지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광주·전남에서 15개 학

교가 도전하며 광주는 단독 유형에 2개대학, 연합 유형에 8개 대학이, 전남에서는 단독 유형에 2개 대학, 연합에 3개 대학이 지원했다.

지난해 예비지정을 통과했지만 본지정에서 고배를 마신 전남대학교가 재도전한다. 이외 4년제 종합대학 중 호남대학교가 단독으로 공모했고 연합 유형에는 조선대학교가 내부 통합과 외부 연합을 진행하며 신청했다.

조선대는 지난달 19일 조선이공대·조선간호대와 내부 통합을 완성했으며 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송원대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선대와 4개 대학은 지난달 14일 광주 시의회에서 협약식을 열고 글로벌대학 지정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케어 △AI모빌리티 △문화산업 콘텐츠 분야를 특화하며 상생을 위한 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 광주보건대학교가 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와 연합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광역권 지역 보건대학교는 공통적으로 50년이 넘는 역사를 공유한만큼 보건으로 계열 인재 육성에 특화되어 있어 원활한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목포대·순천제일대·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학교가 글로벌대학

지정에 나섰다.

목포대학교는 당초 전남도립대학교와 통합을 목표로 공동 신청하려 했으나 전남도립대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되지 않아 글로벌대학 지원이 어려워졌다. 목포대는 단독 유형에 공모하면서도 통합을 골자로 한 기획서를 제출했다.

전남에서도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가 연합체를 구성했으며 단독으로는 순천제일대학교가 글로벌대학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 예비지정 대학 15~20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지정된 대학의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본지정 결과를 7월 중 발표한다.

한편 글로벌대학에 109개 대학(65건)이 신청, 경쟁률은 6.5대1을 기록하며 전년(9.4대1)보다 낮아졌다. 신청 대학 절반 이상인 56개교(20건)이 신설된 '연합' 유형에 공모했으며 지역별로 충남에서 12건(16개교)이 접수돼 전국 지자체 중 최다 건수를 보였다.

지난해 광주는 8개 대학(전남대·조선대·호남대·광주대·남부대·송원대·광주여대·광주교대), 전남은 6개 대학(동신대·목포대·목포해양대·순천대·초당대·순천제일대)이 신청했으며 순천대가 최종 지정, 전남대는 예비지정에 그친 바 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주목

‘업종별 차등 적용’ 관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시급 1만원’ 진입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고 관심사는 시급 1만원을 넘느냐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1만원을 넘는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0년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으로 1.5%였다. 올해 물가상향 등을 고

려했을 때 인상률이 1.5%보다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 도입 첫 해에는 업종별로 차등을 뒀으나 매년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차등 여부를 심의하지만 매년 무산돼왔다. 올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확대하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시대적 과제가 저출생·인구구조·일 가정 양립 등이라고 하면 이를 감안해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

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발언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공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도 변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공익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재자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공익위원 9명 중 8명은 오는 5월 13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고용부는 공익위원 위촉을 위해 노사 단체에 추천 공문을 보냈다. 이 장관은 “노사 입장에 대해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 의견이 대립되면 조정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을 위촉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경찰승진 뇌물’ 현직 치안감, 재판서 혐의 부인

‘사건 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A(59)치안감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56)경감,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경경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A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할 2022년 2월 승진 인사를 대가로 1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 경감은 지난 2021년 12월께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성 씨에게 인사청탁 자금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치안감과 B경감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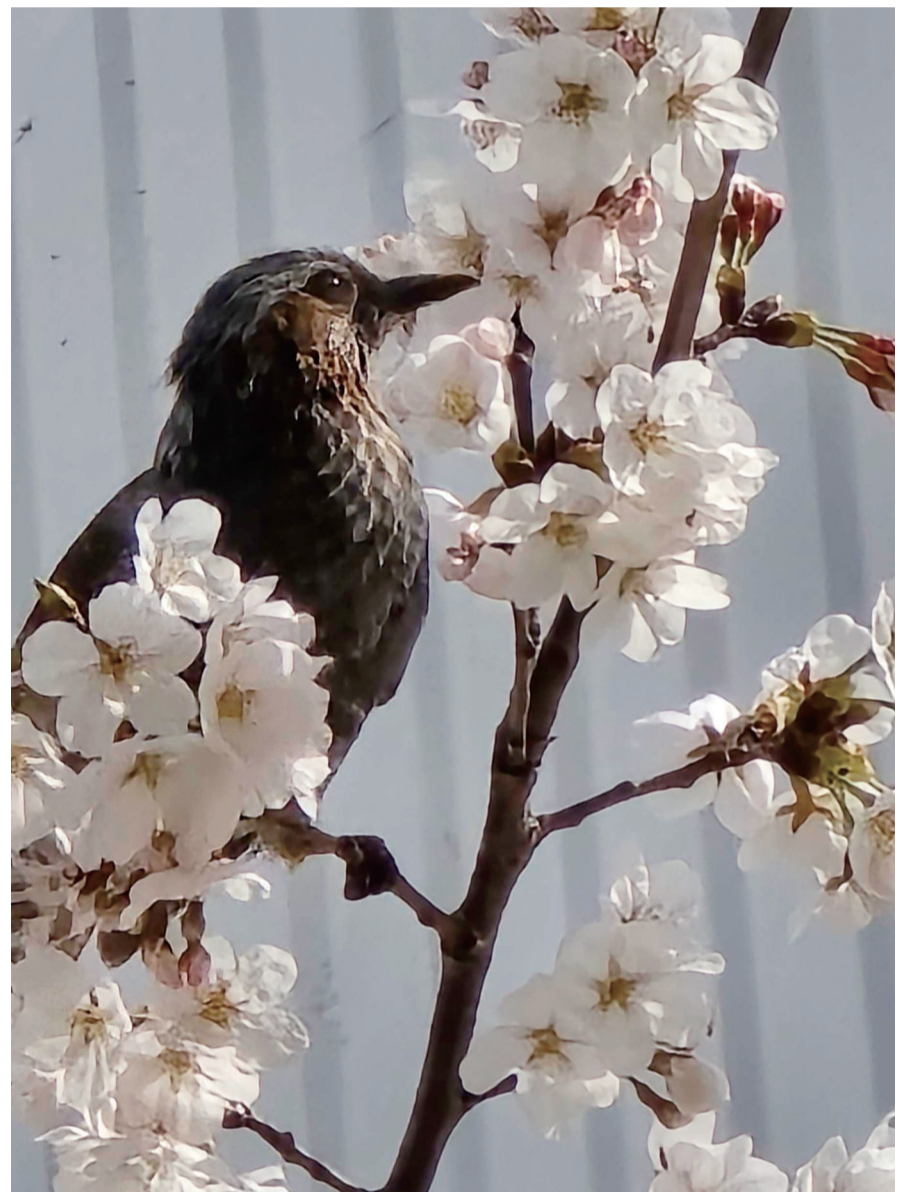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지위에 비취볼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치안감 측은 “성 씨에게 승진 청탁을 받은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승진 청탁을 받고 부정 승진을 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경감 측은 “성 씨에게 금품을 줬지만 승진 목적이 아니었고 A치안감에게 청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성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민섭 기자



꿀 따먹는 직박구리 20도를 웃도는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2일 광주시내 거리에 활짝 핀 벚꽃속에서 직박구리가 꿀을 따먹고 있다. 김영배 기자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